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가) “인간에게는 누구나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순수한 양심이 있어서 이론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인간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본래 타고난 참된 앎을 근거로 하여 양심을 바르게 깨닫고 그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참모습에 대하여 밝게 알아야 하고,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면서 나쁜 마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잘 살피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며,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3-1. (가), (나)를 주장하는 중국의 사상가를 각각 밝히고, 수양론을 중심으로 (가)의 사상을 (나)의 사상과 비교하여 논하시오. [20점]

3-2. (가)의 수양론이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 및 평가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쓰시오. [10점]

4. 다음을 읽고 <보기>를 활용하여 (가)와 (나) 관점의 차이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가)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20점】

(가) 인간은 타인의 허락을 얻거나 타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고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인간이나 집단이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권리는 매우 강력하며 폭넓은 것이므로, 국가나 국가의 관료가 그러한 권리를 침해할 권한은 거의 없다. 국가는 권리를 가진 개인에게 거의 간섭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나)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천부적 재능이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함을 의미한다.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자는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자의 여건을 향상시킨다는 조건하에서만 행운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아무도 자신의 천부적 능력이나 공적을 사회에서 유리한 출발점으로 이용할 자격이 없다.

<보 기>

- 사회에 대한 관점 (자발적 교환 체계 / 상호 이익의 협력 체계)
- 국가의 기능 또는 역할
- 자유의 의미
-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입장

수고하셨습니다